



장성군, 2017년 하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분야별 선발 장학생 15명에 1천 595만원 수여



장성군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7년 하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증서 전달식'을 열고 지역인재 15명에게 장학금 1천 595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전남인재육성단은 매년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미래 전남 발전의 핵심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 오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장학생은 장성군 수의 축전을 받아 선발된 학생들로, 분야별로 ▲미래인재 1명 ▲중소기업 1명 ▲성적우수 2명 ▲희망키움 3명 ▲디자인 5명 ▲해양도시기사 3명 등 총 15명이며, 대학생 15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중학생은 30만원, 초등학생 20만원이 각각 전달됐다.

장학증서를 받은 김 모학생(대학 2)은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사회로부터 받은 따뜻한 응원과 도움을 잊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는 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학증서를 직접 수여한 유두석 장성군수는 학생들에게 "오늘을 계기로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꿈을 향해 열심히 정진하여 장성의 미래를 밝게 빛내 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함평군, 올해 수상 46건·공모사업 39개 선정

함평군이 올 한해 각종 평가와 공모사업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둬 지역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부처 등 각종 기관이 주관한 대외적 평가에서 모두 46 건의 기관표창과 시상금 58억원을 수상했다.

지방세 체납액 축소와 징수율 제고 등 세입확충에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최고로 우수한 실적을 달성해 일출설립 전국 최우수 군에 선정됐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받은 50억원을 활용해 부채 전액을 상환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됐다.

남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건전제정을 운용해 시민단체가 선정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되기도 했다.

전남도가 실시한 부폐방지 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 녹색축산시책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서 나비쌀이 2위를 달성해 농축산업에서도 경쟁력을 끌었다.

지자체 행복지수평가 삶의 질 부문 대상, 지역발전나업 평가 우수상,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저출산극복 우수기관 등 살기 좋은 함평의 면모를 입증했다.

나비축제 도 대표축제 선정,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 대상 수상, 돌마리해수욕장 전국 으뜸해수욕장 선정 등 축제·관광도시로서의 힘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여기에 그지지 않고 올해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39건, 1163억1500만원을 확보했다.

함평 축산특화산업이 투자선도 지구에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8억원, 함평·신광·대동·해보·월야 5개 읍면 5개 마을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24억원)을

추진해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와

생활 및 서비스중심지로서의 거점 기능을 강화한다.

18여여원이 소요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30여원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협평읍의 구도심 기능 강화도 기대된다.

552억원을 투입해 각종 상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해 폐쇄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도 조성한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14억원, 농산물신규유통시설지원사업 37억원 등 지역농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지원해 농업인 소득증대에도 앞장선다.

35억원을 들여 다목적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 군민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각종 평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다수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공무원의 노력과 군민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던 것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준 기자

생활 및 서비스중심지로서의 거점 기능을 강화한다.

18여여원이 소요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30여원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협평읍의 구도심 기능 강화도 기대된다.

552억원을 투입해 각종 상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해 폐쇄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도 조성한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14억원, 농산물신규유통시설지원사업 37억원 등 지역농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지원해 농업인 소득증대에도 앞장선다.

35억원을 들여 다목적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 군민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각종 평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다수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공무원의 노력과 군민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던 것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준 기자

고흥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준비에 총력

내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지원

고흥군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흥군은 처음 실시되는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정자금 지원단 구성 및 읍면 접수 전담창구 개설, 사업 홍보물 배부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내 대상 업체

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우편·팩스 접수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고흥군청 경제유통과(☎ 830-6611)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보성군, '2017년 안전문화운동' 우수 시군 선정

쾌적한 무더위쉼터 조성,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에 기여



보성군은 전남도 주관 '2017년 안전문화운동'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백만원과 상시업비 1천만원을 받았다.

평가는 전남도 22개 시군의 안전문화운동 추진사례를 대상으로 적합성, 칭의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군은 화재, 교통사고 등 지역의 안전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안전교육, 홍보활동과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사회단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 민·관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또한, 무더위쉼터 안전점검 및 생활안전수칙 홍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쾌적한 무더위쉼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기여한 점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안전문화 활동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보성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영광 법성 산하치 끝벌마을' 주민참여숲 최우수상



하치 마을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근 밀원수 단지 조성 확대를 통한 임업과 양봉의 융합산업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산하치 마을은 영광군에서 끝벌마을로 집중 육성하는 지역으로 올해 7천만원 사업비로 아끼시 나루 등 밀원수 1,657본을

6,050평에 대대적으로 심재했다. 2018년에도 조성면적 1,210평 규모로 밀원수를 추가 심재할 계획이다.

또한, 올 2월에는 서울대학교와 끝벌마을 육성을 위한 아끼시 심풀종 묘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자치단체로는 최

초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유의 아끼시 심풀종을 공급받게 되었고 심풀종 훈식 시 아끼시 개화기간이 14일기량 연장되어 양봉농가의 꿀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봉농가 또한 관리구간을 정하여 물주기와 제초작업을 추진하는 등 밀원수 조림 조성에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신소득원으로 기대되고 있는 양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 밀원수 심재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시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